

서사 담화의 ‘역사적 현재’에 관한 연구*

김인환 · 여현정 · 최동주[†]
영남대학교

A Study on the Historical Present in Korean Narrative

Inhwan Kim, Hyeonjeong Yeo & Dongju Choi[†]
Yeungnam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explain how Historical Present(HP) can express past situations, and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 aspects of narrative clauses in which HP occurs, and the differences in motivation to use HP depending on genres. First, we argued that in using HP the speaker assumes new space similar to screen of the movie, through which the speaker/hearer can watch the past situation, so that they feel as if it were now present before their eyes. Second, by analysing oral and written narratives in Korean, we have found that 1) not ‘갑자기(all of a sudden)’ but ‘막(violently, or recklessly)’ tends to co-occur with HP in Korean, 2) deictic expressions occasionally change with HP, but not always. 3) in case of oral narratives, HP is more frequently used than other tense forms with verbs of saying in reporting sentences, regardless of directness of reporting. Finally, it was suggested that, depending on genre, the motivation to use HP seems to be different. In oral narratives, it is more dramatic and for vividness. In written narratives, however, it is more strategic, for example, for the purpose of marking important situation or dividing scenes of the story.

Keywords: narrative, historical present, narrative tense, deixis, tense shift

1. 머리말

서사 담화에는 다음에서 보듯이, 과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형이 쓰이는 현상이 빈번하다.

(1) 누 자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안 오거든.

* 이 논문에 대해 중요한 지적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의 초고는 한민족어문학회 전국학술대회(2018.8.22, 영남대학교)에서 ‘역사적 현재의 특성과 출현 양상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바 있다. 본고는 이를 대폭 수정한 것이다.

[†] Corresponding author: djchoi@ynu.ac.kr



(2) 그러다가 소녀가 물 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낸다. 하얀 조약돌이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간다. 다 건너가더니만 훅 이리로 돌
 아서며,
 “이 바보.”
 조약돌이 날아왔다.

(1)은 구술 자료의 예이며, (2)는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의 예로, 과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다.¹⁾ 이때의 현재형은 ‘역사적 현재’(Historical Present), ‘극적 현재’(Dramatic present) 또는 ‘내러티브 현재’(Narrative Present) 등으로 불리어 왔으나, 본고에서는 ‘역사적 현재’가 좀더 많이 쓰여 온 용어임을 고려하여 ‘역사적 현재’로 부르고자 한다(이하, ‘HP’로 줄임). 본고의 목적은 HP가 어떻게 과거 사건에 쓰일 수 있는지, HP 출현 환경의 특성 및 장르에 따른 차이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밝히는 데 있다.

선행 연구에서 HP는 전형적으로 서사 담화에 나타나며, 세부적인 장르에 따라 출현 양상에 차이가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Wolfson 1979: 55).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누리집에서 제공되는 자료 중 구술서사 50편,²⁾ 구비서사 40편과 단편소설 20편을 분석하였다. 구술서사는 누리집 유형 분류의 ‘현대구전설화’에서, 그리고 구비서사는 ‘설화’에서 추출하였으며, 소설은 서술 시점을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HP가 출현하는 구술 자료만 대상으로 하였으며 소설에서도 HP가 나타나는 미시서사 부분만을 선택하였다. HP의 전체적인 출현 빈도를 밝히고자 한다면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삼고 표본을 추출하여서 살펴야 할 것이나, 이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이다.

시제를 분석하기 위한 단위는 Labov & Waletzky(1967)의 ‘서사절’(narrative clause) 개념을 바탕으로 나누었으나, 등위절을 별도의 단위로 구분한 Labov & Waletzky (1967)와는 달리, 등위절이라도 시제가 독립적으로 표시되지 않고 뒷절의 시제에 따르는 경우에는(최동주 1995=2015: 290-293) 후행절과 묶어 하나의 서사절로 간주하였다. 제보자가 아닌 조사자의 발화나 피인용구문만으로 제시된 대화의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 국어의 시제에 관해서는 ‘과거:현재:미래’의 대립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과거:비과거’의 대립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후자의 관점을 받아들여, ‘비과거형’(‘-았-’이 출현하지 않은 형식)이 문맥에 따라 현재 상황이나 미래 상황으로 해석된다고 본다. 국어의 시제를 ‘과거:비과거’의 대립으로 보는 본 연구의 관점에서 ‘현재형’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역사적 현재’는 대부분 현재로 간주될 수 있는 맥락에서 쓰이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2) 구술서사의 경우는 뿌리깊은나무의 ‘민중자서전’도 보충자료로 사용하였다.

2. HP의 특성 및 분석 기준

2.1. 선행 연구

HP에 대해서는 Jespersen (1931), Wolfson (1979), Schiffrin (1981), Silva-Corvalán (1983), Chafe (1994), Langacker (1991), Curtrer (1994) 등 여러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서정수(1976, 1992, 1994), H-J Chong (1988), 이인영(1993), 김정남(1994, 2010), Y-S Choi (2002), 문숙영(2005, 2008, 2011), 고영근(2008), 서영환(2010, 2014) 등에서 검토된 바 있다.

HP와 관련한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서사에서의 시제는 시제의 ‘기본적’ 시간 기능과 다른 기능을 갖는가?

둘째, 문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HP인가? 아니면 HP와 과거시제의 교체인가?

셋째, HP는 어떻게 과거 사건에 쓰일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무엇인가?

첫째 문제와 관련하여 고영근(2008), 김정남(1994, 2010) 등에서는 소설과 같은 서사 자료의 ‘지문’을 ‘단독적 장면’이라고 하고, 이러한 단독적 장면의 시제가 일상적 대화와 같은 ‘상관적 장면’에서의 시제와 다른 기능을 갖는다고 보았다. 영어 등 다른 언어에 관한 논의나 일반언어학적 논의에서도 서사에서의 시제가 시제의 ‘기본적’ 시간 기능과는 다른 기능을 갖는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는데, Cutrer (1994: 30-33)에서는 이러한 견해가 ‘보통의 소통 또는 대화(normal communication or conversation)’와 서사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없으며, 시제의 서사적 사용과 비서사적 사용을 설명하기 위해 별도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적절치 못하다고 보았다. 본고에서도 양자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도 별개의 체계인 것처럼 간주하기보다는 그러한 차이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밝히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문제는 Wolfson (1979)에서 제기되었다. Wolfson (1979)은 HP가 그 자체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HP와 과거시제의 교체가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함으로써, HP에 관한 논의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동안의 논의에서 흔히 언급된 바 있는, ‘생생함’, ‘서술자의 개입 배제’ 등과 같은 특성들이 과거시제로 표현된 부분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과거 사건을 현재형으로 표현한 데서 비롯한 것이라면, HP와 과거시제의 교체가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견해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³⁾

서사에서의 시제가 시제의 ‘기본적’ 시간 기능과 다르지 않고, HP 자체가 문제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HP는 어떻게 과거 사건에 쓰일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무엇일까? 이와

3) 아울러 이인영(1993: 135) 참조. 송해정(2013: 100, 각주 2)에서는 HP 연구를 HP가 의미를 갖는다는 견해와 과거시제/HP 간의 ‘시제이동’이 의미를 갖는다는 견해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김정남(2010)에서도 ‘현재시제와 과거시제의 교체’를 ‘시제 이동’이라고 불렀다.

(4-01)은 (4)의 제목이므로 (4-02)가 ‘새로운 이야기 단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HP가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4-02)와 같은 표현이 문맥 없이 제시되면 어색해진다. 다음은 서정수(1976: 115)의 예와 최동주(2014: 12)의 예를 옮긴 것이다.

(5) 가. *그분은 친구를 어제 만난다.(서정수 1976: 115)

나. *나는 일주일 전에 집에 있다.

(6) ?에펠은 1889년 에펠탑을 선보입니다.(최동주 2014: 12)

(5), (6)은 현재형이 ‘일반으로는 과거 서술에 쓰이지 못함’을 보여 준다.⁵⁾ 즉 문맥 없이 고립된 표현인 경우에는 과거 사건을 현재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러나 (6)이 (4-02)에서처럼 이야기의 일부로 나타날 때는 자연스럽게 여겨진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6)처럼 과거 사건을 뜻하는 문장이 단독으로 쓰일 때 현재형이 나타나면 어색하나, (1), (2), (4)에서처럼 이야기 속에서는 과거 사건을 현재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듯이, HP는 주로 서사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Fauconnier (1994, 1997)의 ‘정신 공간’의 개념을 빌려 표현하자면,⁶⁾ ‘이야기 공간’이 형성될 때 HP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거 사건을 뜻하는 서사절이 현재형(HP)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와 관련하여 여러 선행 연구에서 사건이 발화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표현되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하고, 혹은 서사자의 위치가 사건이 전개되는 시점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실현되는 것이 가능하다고도 설명하여 왔다. 전자를 ‘사건의 이동’, 후자를 ‘화자의 이동’으로 부르기로 하자.

HP가 ‘화자의 이동’에 의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로는 문숙영(2011)을 들 수 있다. 문숙영(2011: 162)에서는 ‘일반적 현재시제’와 HP의 차이가 ‘화시적 중심의 차이’라고 하고, HP의 경우 ‘기준시가 발화순간에서 사건시로 바뀐 것’이며, 바로 이 점에서 현재시제와 차이가 있고, 실제로는 과거의 사건을 지시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국어에는 이와 유사한 ‘화자의 이동’과 관련되는 문법표지로 ‘-더.’가 있다. 다음을 보자.

(7) 가. 은수가 학교에 가더라.

나. 은수가 학교에 갔더라.

5) 서정수(1976: 112-115)에서는 “비과거형인 \emptyset 가 과거사를 서술하는 것이 영어 등의 언어의 경우보다 더욱 빈번한 것 같다. ... 이처럼 ‘거의 자유로이’ \emptyset 와 ‘있’이 ‘서로 엇갈리고 어울리면서’ 과거 사실을 나타내는 것은 국어의 한 특성이다.”라고 하고 (5)에서처럼 ‘갑자기 튀어나오는 문장들’에서는 \emptyset 가 과거로 쓰일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단, 서정수(1976: 113, 1992: 62)에서는 앞의 현상이 HP와는 다른 현상이라고 보았다.

6) Fauconnier (1994: 17, 1997: 40)에서는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거나 초점을 기존의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요소를 ‘공간형성자’(space builders)라고 부르고, 그 예로 ‘in 1929, in that story, in reality, Susan believes...; If it rains...’ 등을 제시하였다. 공간형성자가 항상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아닌데, 소설 같은 경우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7가)는 은수가 학교에 가는 것을 화자가 보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며, (7나)는 은수가 이전에 이미 학교에 가서 화자가 직접 보지 못하고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을 때 가능한 표현이다. (7나)에서 보듯이, 알게 된 시점(이하 ‘인식시’로 부름) 이전의 사건을 표현할 때는 ‘-더-’의 앞에 ‘-었-’이 통합되는데, 이처럼 인식시를 기준으로 당시의 사건과 그 이전의 사건이 ‘-었-’의 유무에 의해 구별된다는 사실은 인식시가 시제 대립의 기준시점이 됨을 의미하며, 이는 ‘-더-’가 쓰일 때 화자의 위치가 인식시로 이동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최동주 1995=2015: 257-261).⁷⁾

‘-더-’의 경우 인식시로의 이동이므로 ‘기준시가 발화순간에서 사건시로 바뀐 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HP를 ‘화자의 이동’에 의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는, ‘-더-’의 앞에 ‘-었-’이 출현하지 않은 경우, 즉 사건시와 인식시가 동일할 때 HP와 ‘-더-’가 무슨 차이인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다음을 보자.

- (8) 01. 그냥 이렇게 여기 형체만 여기는 안 보여.
 02. 근데 여기만 이렇게 보이더라구요.
 03. (조사자: 얼굴만?) 예, 얼굴이 이렇게 한테 요기만 이렇게 이빨이만 하얗게 보여.
 : : :
 07. 뭐 땀에 그랬나 하구선, (청중1: 뭐가 있나 좀 보지.) 그랬더니 수수빋자루 하나가 있더라구.
 08. 수수 빋자루가, 수수 빋자루 이렇게 닳은 거, 그제 하나가 있어요.
 09. 그래서는 아닌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허드라구.

구술서사에서는 (8)에서처럼 실제로 ‘-더-’가 HP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일 HP가 ‘사건시로 화자의 이동’에 의한다면, (8)과 같은 예에서는 사건시와 인식시가 동일하므로 HP와 ‘-더-’가 동일한 기제가 되어, 왜 달리 사용한 것인지, 문맥적 의미나 어감의 차이(예를 들면, HP가 쓰인 서사절에서는 ‘회상’이나, ‘무책임성’, ‘심리적 거리감’ 등의 느낌이 없다)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HP가 ‘-더-’와 다른 기제라면, HP는 사건의 이동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HP를 사용할 때 사건이 대화 공간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 화자 및 청자에게 대화 공간의 사건과 이야기 공간의 사건이 여전히 구별되며, 한데 섞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TV에서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거나 자료 영상을 제시하면서 보도할 때 흔히 현재형이 사용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자의 눈앞에서 사건이 전개되기 때문으로, HP 역시 이와 유사한 기제일 것으로 판단된다. 대화 공간에 실제로 자료 영상 같은 것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그와 유사한 공간을 상정하고 그

7) 선행 연구에서 ‘-더-’가 ‘의식의 단절’, ‘회상’, ‘무책임성’, ‘심리적 거리감’, ... 등 다양한 문맥적/함축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설명된 바 있는데, 이러한 의미들은 ‘화자의 이동’, 즉 ‘화자의 위치(視點)의 이동’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최동주 1995=2015: 271-275).

공간에서 사건이 전개되는 것처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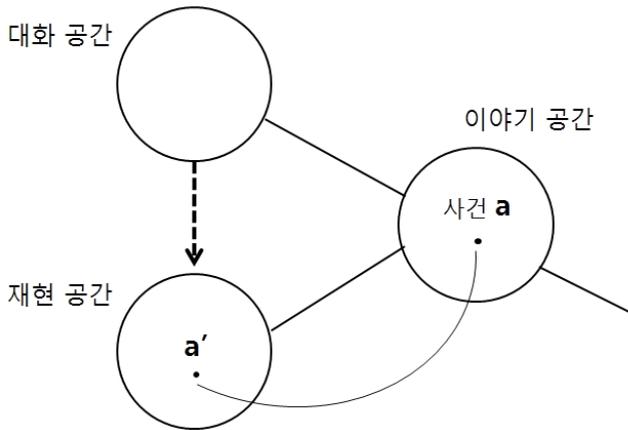
한편 ‘1차적 허구’와 ‘2차적 허구’를 구별한 **Vuillaume (1990)**의 견해도 참고할 만하다. 다음은 **Cutrer (1994: 40-42)**에 소개된 설명의 일부를 옮긴 것이다.

(9) 가. 1차적 허구(primary fiction)는 ‘histoire’, 즉 과거 허구적 이야기에 대응한다. 2차적 허구(secondary fiction)에서는 과거 사건이 재현되어, 독자/작가의 마음속에서 현재 시점에 되살아나게 된다. 2차적 허구에서 독자와 서사자는 사건을 직접 목격하는 것처럼 간주된다.

나. 허구에서(in the piece of fiction) 독자와 서사자는 두 개의 시간적 좌표 체계, 즉 과거인 이야기 세계와 현재인 2차적 허구 사이를 이동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9)를 받아들여, 서사가 전개될 때 ‘이야기 공간’이 형성되며, 스포츠 게임의 중계 영상이나 자료 영상과 유사한, 마치 사건이 눈앞에서 전개되는 듯한 ‘재현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자 한다. 전자가 (9)의 ‘1차적 허구’와 유사하다면, 후자는 (9)의 ‘2차적 허구’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0) 이야기 공간과 재현 공간



(10)에서 실선은 서사가 전개되면서 새로운 공간들이 형성되는 것을 나타낸다. ‘재현 공간’은 스포츠 중계 화면이나 자료 영상처럼 화자 및 청자가 직접 볼 수 있는 것으로 마음 속에 상정되는 공간으로, (10)의 점선으로 된 화살표는 ‘재현 공간’이 대화 공간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것처럼 상정됨, 즉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재현 공간’도 서사 담화의 일부이므로 이야기 공간의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대화 공간으로부터 직접 ‘재현 공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서사 담화가 HP로 시작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서사가

전개될 때 이야기 공간의 사건은 과거형으로 표현된다. 사건이 재현 공간으로 옮겨지면, 재현 공간은 스포츠 중계 화면이나 자료 영상처럼 화자 및 청자가 직접 볼 수 있는 것으로 가정되는 공간이므로, 현재형, 즉 HP로 표현되며, 화자가 이야기 공간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더-’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앞의 (7나)에서 인식시 이전의 사건인 경우에 ‘-더-’의 앞에 ‘-였-’이 출현함을 살펴본 바 있다. 재현 공간에 옮겨진 사건의 경우에도 그보다 이전의 사건이 이어질 때는 ‘-였-’이 출현한다. 다음을 보자.

- (11) 01. 자서 이렇게 머리를 보니까 머리가 **없어**. 상투도 없고, 머리가 **없어요**.
 02. 그 인제 증은 **갔지**,
 03. 그래놓고, 머리 **깎아놓고 갔어요**.
 04. 잘 사이에 가서 가위로, 가위로 상투 **잘라 버리고 갔어**.
- (12) 01. 게 제사를 못 **지내**.
 02. **싹 뺏어가 버렸어**. 거기 가보니까

(11-02, 03, 04)의 사건은 (11-01)의 ‘자고 (일어나) 보니까 머리가 없는’ 상황보다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며, (12-02) 역시 (12-01)의 ‘제사를 못 지내는’ 상황보다 이전의 사건으로 ‘-였-’이 출현해 있다. 이러한 경우 ‘-였-’의 출현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HP에 의해 이야기 공간의 사건이 재현 공간으로 옮겨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현 공간에 옮겨진 사건의 사건시가 연관되는 상황의 기준시점이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Cutrer (1994: 416-420)에서도 HP가 현재형의 ‘특별한/유표적 사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저 공간(BASE)’의 이동과 관련된다고 한 바 있는데,⁸⁾ 이는 본고의 견해를 뒷받침해준다.

(10) 역시 문숙영(2011)에서 지적된, ‘일반적 현재시제’와 HP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 현재시제’로 표현된 사건은 대화 공간의 사건이며, HP로 표현된 사건은 재현 공간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⁹⁾ ‘일반적 현재시제’로 표현된 사건은 화자 및 청자가 직접 목격할 수 있으나, HP로 표현된 사건은 과거의 사건을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재현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한다. 재현 공간의 사건 a’는 이야기 공간의 사건 a의 대응형이므로 실제로는 과거의 사건을 지시하는 것이다.

(10)은 기본적으로 대화에서 서사가 나타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소설과 같은 문어 서사의 경우에는 저자와 독자가 공간을 공유하지 않으므로, ‘대화 공간’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내포 저자’(implied author)나¹⁰⁾ 서사자(narrator)가 말하는

8) ‘기저 공간’이란 공간들의 계층적 조직(hierarchical organization)에서 처음(initial or original) 공간을 말한다. 기저 공간은 기본적으로 항상 ‘현재’이다(Cutrer 1994: 72-73).

9) (10)은 ‘사건의 이동’을 상정하므로, 직시적 중심(이하 ‘화시적 중심’을 ‘직시적 중심’으로 바꿔 부르기로 함)의 이동이 없으며, 따라서 직시적 중심의 차이도 없다.

10) ‘내포 저자’는 독자가 서사를 읽을 때 독자에 의해서 구성되는 저자의 개념으로, 실제 저자나 서사자와

과거의 습관적 상황이며, (17-06)은 특정 시점에서의 구체적 사건으로 앞의 사건과 순차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데, 이러한 점에서 (11), (12)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17-06)에 현재형이 나타나기 어려운 것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좀더 확실한 논의는 차후의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HP에 관한 본 연구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 HP의 특성과 제약

- 가. HP의 특성: HP는 현재시제로서 과거 사건에 쓰인 경우를 말한다. HP가 과거 사건에 쓰일 수 있는 것은 이야기 공간의 과거 사건을 재현 공간으로 옮겨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재현 공간은 스포츠 중계 화면이나 자료 영상처럼 화자 및 청자가 직접 볼 수 있는 것으로 마음 속에 상정되는 공간이므로, 화자 및 청자는 사건이 눈앞에서 전개되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재현 공간 사건의 사건시는 연관된 사건의 시제 해석의 기준시점이 된다.
- 나. HP의 제약: HP는 이야기 공간의 사건에 대해서만 쓰일 수 있다.

HP가 쓰인 표현이 ‘생생함’의 느낌을 준다든가, ‘인과 판단을 보류하고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바라봄’(Y-S Choi 2002: 157) 등의 의미를 뜻할 수 있는 것은 HP가 현재시제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HP와 과거시제의 교체가 장면 분할(Wolfson 1979)을 표시하기도 하는 것은 HP가 새로운 공간의 형성과 관련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HP가 서사 구조 또는 내용과 관련이 있고, 중요한 상황에 쓰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앞의 장면 분할과 함께 서사자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3. HP의 분석 기준

HP는 단순 현재(‘일반적 현재시제’)와 형태상 구별되지 않으며, 실제로 HP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다음을 보자.

- (19) 01. 트고 트고 험게 본게 구렁이가 거그 살았드랴요.
02. 그놈 잡아부렸어 할아버지가.
03. 잡었는디 그놈 잡음서부터는 집에 가 막 울어.
- (20) 01. 제일 위에다가 요만허니 예쁜 놈을 탁 얻어 났드랴.
02. 아이 뒷집 영감님이 그걸 보닝개로 그게 금독여. 제일 우에다 얻어 놓은 게
03. 아 그 영감님 눈에는 막 불이 편적편적 일어나.

(19), (20)은 HP의 가장 전형적인 예문들로, 과거 어느 시점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사건을 현재형으로 표현한 예들이다.

다음은 과거 어느 시점에서의 습관적, 총칭적 사건이나 상태를 뜻하는 예들이다.

- (21) 가. 앞에, 앞집에는 가난히 빠진 사람이 살고 뒷집에는 부자가 살아.
나. 유기장사를 만날 총각이 다니거든.

다. 그 가매뭇 그게서 천부이 낚시로 해 가지고 똑 여 영갸이 참 담배값을 벌이가 늘 사는 기라.

- (22) 01. 새떡 시절인데, 그, 나무에 그렇게 고사 지내.

02. 고사지내는 거는 아주 또렷하게 우리 집안 식구가 나가서 고사를 지내시니까 알았었는데, 그 도당곳은, 그것도 일 년에 한 번씩 했어.

(21), (22-01)은 과거 어느 한 시점에서의 사건은 아니나, 현재 시점에서도 참인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과거의 어느 기간 동안 지속되었던 과거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현재형으로 표현되면 HP로 간주할 수 있다.¹²⁾ (22-01)의 ‘고사’와 (22-02)의 ‘도당곳’은 과거의 반복적인 사건인데, (22-01)에서는 현재형으로 표현되었으며, (22-02)에서는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22-01)의 현재형이 HP임을 확인시켜 준다.

다음은 서술어가 ‘체언+이다’인 구문이 현재형으로 나타난 예들이다.

- (23) 아 옛날이 우리 뒤가, 그 뒷집이 부자여.

- (24) 가. 아이 뒷집 영감님이 그걸 보닝개로 그제 금독여.

나. 그른께 제 밤 중 된께 천장 우에 대들보에서 큰 지네라.

다. 배가 불러가 열 달이 채이가 놓으니까 아들이라.

(23)은, 앞에서 살펴본 (21)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지속적 상황이라 할 수 있으므로 HP로 분석될 수 있다. 이와 달리 (24)의 서술어 부분이 뜻하는 바는 과거 어느 특정 시점에만 국한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HP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24)의 예들이 과거형으로 바뀌어도 의미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며, 과거 어느 시점에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의미가 강하다는 점에서 과거의 의미가 있다고 보아 HP로 간주하였다. (24가)의 ‘그걸 보닝

12) Schiffrin (1981: 50)에서는 이와 유사한 반복적/지속적 과거 상황을 단순 현재로 보았다.

(4) I'll never forget it. Hospitals are usually empty, no doctors around y'know. Most of them are all out. And my doctor was Dr. uh McGee. He's at Broad and Elm.

Schiffrin (1981: 50)에서는 ‘삽입된 배경절(embedded orientation)의 예로 (4)를 제시하고, (4)의 밑줄 친 문장들과 같은 습관적인 사태는 과거를 가리키지 않는 단순 현재시제로 보아 HP로 분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의 예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참이 아닌, 과거 상황에 대한 진술이며, 현재형으로 표현되었으므로 HP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들이 과거 상황임을 중간에 위치한 ‘And my doctor was Dr. uh McGee.’가 과거시제로 표현된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Schiffrin (1981: 51)에서는 이어서 HP가 배경절에 거의 출현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앞에서와 같이 배경절에 나타나는 습관적 상황을 단순 현재로 분석한 데 기인한다.

개로’, (24나)의 ‘밤 중 되께’, (24다)의 ‘열 달이 채이가 놓으이까’와 같은 과거 시점 관련 표현의 출현은 본 연구의 분석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HP로 간주하기 어려운 예들이다.

(25) 가. 그 빗지락 몽댕이 옛날 예전에 여자들 그 월경이 깔고 앉으른 월경이 묻으른
그것이 도깨비가 돼.

나. 그 도깨비는 내가 져야 오래 못 살고, 이기른 오래 살아.

(26) 01. 나락만 뺏기고 그 독을 안 실어왔어.

02. 우에 독을 못 준단디 어똥게 혀.

(25)의 예들은, 과거형의 통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과거형으로 표현되면 과거의 어느 특정 시점에서 있었던 실제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25)는 현재 시점에서 참이 아닌 상황이나, 과거 시점에서도 실제로 있었던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간성을 갖지 않는 일반적 믿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우 과거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초시간성’(timelessness)을 가지는, ‘구조적 지식’(Goldsmith & Woisetschlaeger 1982)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 현재로 간주하였다.

(26-02)는 과거형으로의 교체가 불가능하다. (26-02)는 불가피했던 상황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Labov(1972: 371)의 ‘외부적 평가(External Evalua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어똥게 혀’(>‘어떻게 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뜻하는 경우, ‘-었’의 통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이 표현이 이러한 상황에 쓰이는 전형적 표현으로 고착화된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HP의 예로 간주하지 않았다.

3. HP의 출현 환경의 특성

3.1. 양태 부사(어)와의 공기

Wolfson (1979: 174)에서는 HP와 과거시제의 교체(shift)가 서사에서 사건을 구분짓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시제 교체와 부사어 ‘all of a sudden’이 두드러지게 공기함을 제시한 바 있다. ‘all of a sudden’은 의미 자체가 어떤 새로운 것이거나 예상되지 않은 것의 발생을 나타내므로, 이러한 부사어와 시제 교체의 공기는 시제 교체가 사건 분할의 구조적 표지임을 강하게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Silva-Corvalán (1983), 이인영(1993), 서영환(2010) 등에서도 HP와 ‘all of a sudden’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국어에 대해서도 동일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all of a sudden’에 대응하는 국어 부사(어)로는 ‘갑자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검토한 자료들 가운데 구술 자료에서는 그 예를 발견할 수 없었고 문학작품에서도 ‘갑자기’는 출현 횟수가 총 5회로, 드물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어의 서사 담화에서 HP와 부사 ‘갑자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자료들 가운데 HP와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부사어는 양태부사 ‘막’이었다.¹³⁾ 다음은 ‘막’이 출현한 구술 자료(41편)를 대상으로 서사절의 시제형에 따라 양태 부사 ‘막’이 출현한 빈도를 보인 것이다.

표 1. 과거 사건을 뜻하는 서사절에서의 ‘막’의 출현 빈도

시제		Past	더	HP	계
출현 빈도	구술 자료	12 (16%)	8 (11%)	56 (74%)	76 (100%)
	소설	-	-	2 (100%)	2 (100%)

표 1은 종속절이나 피인용절에 ‘막’이 나타나는 경우들은 제외하고, 과거 사건을 뜻하는 서사절의 시제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만 제시한 결과로서, 구술 자료에서 ‘막’의 출현 빈도가 높고 ‘막’이 출현한 예의 대부분이 HP가 쓰인 서사절임이 확인된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막’의 출현 횟수가 2회로, 구술 자료에서와 달리 거의 출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막’의 출현 양상의 차이는 장르에 따라 HP를 사용하는 동기가 다름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4장에서 후술함).

다음은 구술 자료에서 HP가 쓰인 서사절에 ‘막’이 나타난 예들이다.

- (27) 가. 이 부잣집 딸인데도 막 시골에 오만 일을 다 하고 사는 거라.
 나. 아 그 영감님 눈에는 막 불이 편적편적 일어나.
 다. 배아프다고 막 궁글어.

(27가)의 ‘막’은 ‘아무렇게나 함부로’의 의미를 뜻하며, (27나,다)의 ‘막’은 ‘몹시 세차게 또는 아주 심하게’의 의미로, 어떤 상태나 행위의 정도가 격렬함을 뜻한다. 이러한 ‘막’의 의미는 어느 편이든 ‘생생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최지현 2005: 19, 조민정 2015: 210). 이인영(1993: 140)에서는 “HP가 ‘vdrug’ 혹은 ‘all of sudden’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은 “HP가 인식적으로 두드러지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한 바 있는데, 이처럼 인식적으로 두드러지게 하는 기능은

13) ‘막’이 ‘바로 지금’의 의미인 경우는 ‘시간 부사’이며, ‘몹시 세차게 또는 아주 심하게’나 ‘아무렇게나 함부로’의 의미인 경우는 ‘양태 부사’이다. 양태 부사 ‘막’에서 담화표지화한 ‘막’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양태 부사에 포함하기로 한다(조민정 2015: 210).

국어 서사 담화의 경우 ‘갑자기’보다는 ‘막’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막’과 HP와의 상관성을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막’의 절대적 출현 빈도뿐만 아니라, 과거 사건을 뜻하는 서사절에서 시제형에 따라 ‘막’이 출현하는 상대적 빈도를 산출해 볼 필요가 있다. 소설에서는 HP를 사용하는 동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소설의 예를 제외하고 구술 자료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과거 사건을 뜻하는 서사절에서의 ‘막’의 시제형별 상대적 빈도

시제	Past		더		HP		계	
	전체	막	전체	막	전체	막	전체	막
출현 빈도	311	12 (4%)	60	8 (13%)	487	56 (11%)	858	76 (9%)

‘막’의 상대적 출현 빈도는 ‘-더.’가 결합한 경우 13%, HP가 쓰인 경우 11%, 과거형일 때는 4%의 순으로, 과거형인 경우에 비해 ‘-더.’가 결합한 경우와 HP에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HP일 때의 ‘막’의 상대적 출현 빈도는 절대적인 수치가 높은 것은 아니나, 과거형일 때에 비하면 3배에 가까워서, ‘막’이 과거형보다 HP와 밀접한 관계임을 확인시켜 준다. ‘-더.’가 통합한 경우는 다른 경우에 비해 전체적인 수치가 적기는 하나, 이러한 결과 자체는 ‘-더.’가, 앞에 ‘-었.’이 출현하지 않은 경우(앞의 (7가) 참조), ‘화자의 이동’에 의해 사건을 눈앞에 보듯이 표현하는 기능을 갖는 데 기인한다고 하겠다.

3.2. 인용구문과의 상관성

선행 연구에서 직접인용의 인용동사에 HP가 빈번하게 쓰이는 현상도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 Schiffrin (1981: 58)에서는 영어 구어체 이야기 속의 인용동사의 시제를 계량적으로 살펴보고, HP의 출현이 직접인용에서 활발함(직접인용 63%, 간접인용 5%)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Chafe (1994: 218)에서는 직접인용과 HP가 “모두 외부적 경험의 특성을 내성적 경험에 가져오는 방법이다. …(중략)… 두 장치 모두 내성적 경험이 보통의 방식으로 표현될 때 결여한 직접성의 특성을 전달한다. 따라서 HP와 직접인용이 공생관계(symbiotic)임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양자는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그들 중 어느 하나만 있을 때보다 둘이 함께할 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자료에서도 일부 유사한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으나, Schiffrin (1981)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표 3. 인용 방식에 따른 인용동사의 실현 양상

인용 방식		Past	더	HP	계
구술 자료	직접인용	5 (11.1%)	4 (8.9%)	36 (80%)	45
	간접인용	14 (12.8%)	17 (15.6%)	78 (71.6%)	109
	계	19 (12.3%)	21 (13.6%)	114 (74%)	154 (100%)
소설	직접인용	10 (41.7%)	-	14 (58.3%)	24
	간접인용	9 (52.9%)	-	8 (47.1%)	17
	계	19 (46.3%)	0	22 (53.7%)	41 (100%)

표 3은¹⁴⁾ 인용구문에서의 HP의 출현 빈도가 구술 자료의 경우 74%, 소설은 53.7%로서, 구술 자료에서 더 높음을 보여 준다. 4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구술 자료와 소설의 경우 HP의 전체적인 출현 빈도는 각각 57.1%와 70.7%로서, 구술 자료에서 인용구문일 때 HP가 출현하는 빈도가 구술 자료에서의 전체적인 HP 출현 빈도보다 더 높으며, 소설에서는 그와 반대의 양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Chafe (1994)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구술 자료에 나타나는 HP가 ‘직접성’의 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3은 또한 구술 자료와 소설 모두에서 직접인용의 경우가 간접인용의 경우보다 HP의 출현 비율이 높기는 하나, Schiffrin (1981: 58)에서와 같은 차이는 아님을 확인시켜 준다. 국어 서사 담화에서는 영어와 달리 HP의 출현 빈도가 인용 방식에 따라 차이가 크지 않은데, 이와 관련하여, 문숙영(2012: 222)에서 논의된 다음 현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8) 가. He said, “I don’t mind it.” → He said he didn’t mind it.

나. 그는 “나는 그거 상관 안 해.”라고 말했다. → 그는 자신이 그것을 상관하지 { 않는다고, *않았다고 } 말했다.

(28가)에서 보듯이, 영어에서는 인용동사의 시제가 과거일 때 간접인용에서 피인용절의 시제가 과거로 전환되나, (28나)는 국어의 간접인용에서 시제 전환이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 준다. 국어의 간접인용은, 영어와 달리, 시제 전환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접인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국어 서사 담화에서 HP의 출현 빈도가 인용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14) 표 3에서 구술 자료에 비해 소설의 수치가 적은 것은 자료의 양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설의 경우 작품에 따라 편차가 크기는 하나, 직접인용에서 인용동사 없이 피인용문만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간접인용의 출현은 더욱 드물었기 때문이다.

3.3. 직시어(deixis)와의 상관성

Langacker (1991: 267)에서는 HP와 관련하여, “화자는 직시적 중심을 실제 발화 사건의 여기-지금으로부터 분리하여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데, 특히 역사적 현재의 경우, 보고되고 있는 사건의 시간, 장소와 동일시된다. 기술적 목적상(for descriptive purposes), 화자는 사실상 이들 사건이 실제로 ‘바로 여기,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며, 그렇게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동일한 직접성(immediacy)을 가지고 그것들을 볼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어서 직시적 중심의 이동은 시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시적 요소에도 관련된다고 하고, 앞의 (16)의 *this*와 *come*을 그 사례로 지적하였다. 다음은 앞의 (16)을 옮긴 것이다.

(16) I'm sitting on the porch *yesterday* and this suspicious-looking guy comes into my yard ... (Langacker 1991: 262)

그런데 (16)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yesterday*가 ‘화자가 현관에 앉아 있는’ 사건의 시점을 가리키나, ‘발화사건의 여기-지금’을 직시적 중심으로 하는 직시표현이라는 점이다. *this*와 *come*의 경우에는 ‘보고되고 있는 사건의 시간, 장소’로 이동한 직시적 중심이 반영되었으나, *yesterday*의 경우에는 직시적 중심이 바뀌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HP가 쓰인 서사절에서 직시어의 출현 양상이 일관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본고에서는, (10)에서 살펴본 바 있듯이, HP가 사건의 이동에 의하여 가능하며, 직시적 중심의 이동은 관련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사건이 이동하는 경우에도 직시적 중심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유사하게 직시적 중심과의 관계가 달라지므로 HP가 쓰인 서사절의 직시어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다음은 소설의 예들이다.

- (29) 가. 당신은 지금 나무를 보고 있다,
나. 그러니까 지금, 일진들이 혁진을 둘러싸고 모여 있다.
다. 지금 다시 거울에 비친 나는 머리가 형클어진 채 고개를 욕조에 깊이 처박고
는 엉덩이를 들썩대며 씩씩하게 욕조를 닦고 있다.
- (30) 01.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02. 그런데, 어제까지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03. 소년은 개울둑에 앉아 버렸다.

(29)는 시간 직시어 ‘지금’이 HP가 쓰인 서사절에 나타난 예들이며, (30-02)에서는 HP가 쓰인 서사절에 ‘오늘’과 같은 시간 직시어가 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과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시어들이 쓰일 수 있는 것은, (10)과 관련하여 언급한 바 있듯이,

HP의 사용에 의해 이야기 공간의 사건이 재현 공간으로 옮겨져서, 사건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다음은 ‘이’ 계열의 직시어가 HP가 쓰인 서사절에 출현한 예들이다.

(31) 가. 반파마 해갓고 요렇게 휘휘휘 휘 이렇게 가.

나. 고걸 뜯을라구 기냥 이만큼씩 쪽쪽 혀는 게 있어서, 그걸 가서 이렇게 막 뜯어.

다. 이렇게 돌리다보니까 저만치에 바우가 이만한 게 넓죽한 게 있어요.

(31)은 구술서사의 예로서, 이야기 공간의 인물이나 대상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들인데, 여기의 ‘이’ 계열 직시어들은 발화 현장, 즉 대화 공간에서의 서사자의 동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여기의 ‘이’ 계열 직시어는 HP의 사용에 따라 사건이 지금 눈앞에서 전개되는 듯이 표현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31)의 경우 HP가 과거시제로 바뀌어도 ‘이’ 계열 직시어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데, 이는 (31)의 직시어들이 사건의 이동과 무관함을 뒷받침해 준다.

다음 구술 자료의 예들은 HP가 쓰인 서사절의 직시어가 사건의 이동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2) 01. 그래 인자 그때 홀리는 거여. 사람이란게

 : : :

06. 그때서 사람 신호가 와.

 : : :

08. 그때 그쎈 답변이 온게 오더라구.

09. 사람이 아 그때 우리 재종형님이네 아들허구 둘이 거기도 밤나무 비러왔어.

(32)에서는 연속되는 서사절의 서술어 시제형이 HP인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때’가 특별한 차이가 없이 나타나고 있다. (32)는 HP가 쓰인 서사절의 직시어가 사건의 이동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29), (30)에서처럼 HP가 쓰인 서사절의 직시어가 사건의 이동의 특성을 반영하기도 하고, (32)에서처럼 반영하지 않기도 하는 것은 HP에 의해 ‘사건의 이동’이 이루어지더라도 대화 공간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재현 공간으로 옮겨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야기 공간이나 대화 공간과 달리 재현 공간은 실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화자 및 청자의 마음 속에 가정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29), (30)에서처럼 시간 직시어의 경우 앞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재현 공간의 사건이 대화 공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상정됨으로써 대화 공간과 동시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4. 장르에 따른 HP 사용의 차이

4.1. 구술 자료

구술서사와 구비서사의 과거 사건의 실현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구술 자료에서의 과거 사건의 실현 양상

	Past	더	HP	소계
구술서사	330 (37.2%)	107 (12.1%)	450 (50.7%)	887
구비서사	327 (36.3%)	2 (0.2%)	571 (63.4%)	900
합계	657 (36.8%)	109 (6.1%)	1,021 (57.1%)	1,787 (100%)

앞에서 밝힌 바 있듯이, 본 연구에서는 HP가 나타나는 자료만 분석하였기 때문에 [표4]의 구체적인 수치가 어떤 일반적 경향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제한적 의미만을 가지나, [표4]는 HP가 출현하는 구술 자료의 경우, HP가 상당히 높은 빈도를 차지함을 보여 준다. 구술서사와 구비서사는 ‘-더-’의 출현 빈도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후자에서 ‘-더-’의 출현 빈도가 현저히 낮은 것은 화자가 직접 지각한 상황에 쓰이는 ‘-더-’의 특성상 구비서사에는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이다.¹⁵⁾

다음은 구술서사와 구비서사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33) 01. 옛날에는 보를 막어서 농사 짓잖아요.

02. 요로고 또랑 보를 막어갖고 농사짓는다 보를 막어노든 그놈 트고 물 빠져볼른 못하잖아요.

03. 트고 트고 험게 본게 구렁이가 거그 살았드라요.

04. 그놈 잡어부렸어 할아버지가.

05. 잡었는디 그놈 잡음서부터는 집에 가 막 올어.

06. 막 배만 아프다고 막 궁글드만 방에서.

(34) 01. 총각이 유구장사를, 있죠? 그릇. 응, 유기. 유기장사를 만날 총각이 다니거든.

02. 다니다가 그 부잣집에 가서 소죽도 끓이고 불도 때고 그러고로 인자 있는데, 그 집에 주인 처녀가, 부잣집 그 딸이 뭘 편지를 앞에 집어던지고 가요. 그 총각. 유구장수 총각 앞에다가, 불 때는 앞에다가.

15) 구비서사에서는 아래의 두 예문만을 발견할 수 있었다.

ㄱ. 두꺼비랑 지네가 상극인 갑네.

ㄴ. 어떻게 해서 이 집에 말이지 상은 부자 상이 아닌데, 부자가 됐느냐 하는 식으로 하네.

- (35) 01. 그래두 해방되구서두 이것저것 허러 멩겼지.
 ∴ ∴ ∴
 07. 난리나구 나는 피난 멀리 가지 않았어.
 08. 마누라가 그때 아이를 낳아서 멀리 못 갔어요.
 09. 저기 시흥 거기루 피난을 갔다가 쪼끔 있다가 들어왔어.
 10. 들어와두 숨어 지내구 또 뭐 먹을 게 있나, 일을 할 수가 있나, 뭐 고생이지.
 11. 인민군 나가구두 그래.
 12. 떡구 살기가 어려워.
 13. 그때 우리 마누라가 뭐 안 현 게 없어.
 ∴ ∴ ∴
 26. 우리 마누라가 약한데두 온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깐 그 짓을 하구 살았지.
 팔남매, 요만요만한 것을 데리구…
 27. 이제 저녁 때 집에 오면 영영 울구 그랬어.
 28. 우리 큰아들은 난리통에 고생하다가 그만 죽었어.
 29. 지금 살았으면 아마 마흔아홉이나 됐을 걸.
 30. 그때 열아홉살인가 그랬어.

- ‘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2’의 일부

(35)는 6·25를 겪은 일을 이야기한 구술서사인데, (33), (34)에서의 HP의 출현 양상과 차이를 보인다. (35)는 6·25를 배경으로 ‘일거리 이야기’, ‘피난 가서 아내가 장사한 이야기’, ‘큰 아들이 죽은 이야기’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들 사건은 (33), (34)에 비하여 긴박감이 덜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이 나열된 다소 장황한 서술이라는 느낌을 준다.

이처럼 HP가 집약적이고 긴박하게 전개되는 이야기에서 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막’과 같은 양태 부사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인용구문의 인용동사에 쓰이는 빈도가 높다는 사실은 청자로 하여금, 이야기가 더욱 극적이고 생동감 있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2. 문학작품

다음은 소설에서의 과거 사건의 실현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표 5. 소설에서의 과거 사건의 실현 양상

	Past	더	HP	소계
소설	204(29.3%)	-	492(70.7%)	696

소설은 어느 정도 기간의 구상을 거쳐 쓰여질 뿐만 아니라, 작가가 전문적인 서사자라는 점, 그리고 작가와 독자가 대화 공간을 공유하지 않는 점¹⁸⁾ 등 많은 점에서 구술 자료의 경우와 다르다. 특히 구술 자료와는 달리, 소설에서는 일정한 부분에 HP가 집중적으로 출현하는 경향이 있는데,¹⁹⁾ 다음은 이를 잘 보여 준다.

- (36) 01. 그러나 아무래도 조금 전에 처형에게서 들은 얘기 중 한 장면이 실제로 본 것처럼 선명하게 떠오르는 걸 어찌할 수 없었다.
 02. 그러니까 지금, 일진들이 혁진을 둘러싸고 모여 있다.
 03. 그중 가장 힘이 센 덩치 하나가 혁진에게 주먹을 쥐라고 한다.
 04. 혁진은 주먹을 준다.
 05. 팔목에도 힘을 주라고, 안 그러면 팔목이 나간다고 경고한다.
 : : :
 11. 하나, 팔의 추가 첫 번째 왕복 운동을 한다.
 12. 둘, 팔의 추가 두 번째 왕복 운동을 한다.
 13. 셋! 피에 젖은 주먹과 유리가 박힌 팔을 빼지 못한 채 흐느껴 우는 혁진은 그렇게 상습 자해 학생이 되었다.

- 「재」(2017)²⁰⁾ 일부

(36)에서는 ‘과거-HP-과거’의 순서로 시제가 교체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과거의 한 사건을 떠올리는 (36-01)에는 과거시제가 사용되었으며,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여 서술하는 (36-02)부터 (36-12)까지는 모두 HP로 나타난다. (36-13)은 사건 회상을 마무리하는 장면으로 다시 과거시제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설에서 HP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강하여, 구술 자료의 양상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소설이 구상을 거쳐 쓰여질 뿐만 아니라, 작가가 전문적인 서사자라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상으로, 작가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고 하겠다. 다음은 HP가 출현한 부분이 서사 구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예이다.

- (37) 01. 바람이 여전하다.
 02. 저만큼서 흙먼지가 땅을 한꺼풀 벗겨 흠이불처럼 돌돌 말아오는 것같이 엄청난 기세로 몰려온다.
 03. 골목 안의 모든 것이 ‘뎅그렁’, ‘와장창’, ‘우르릉’ 하고 제각기의 음색으로 소리 높이 비명을 지른다.

18) 이로 인하여 재현 공간의 위치가 구술서사 및 구비서사와는 다를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대화 공간과 같은 시점에 위치하나, 소설에서는 그러한 대화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19) 소설에서 HP가(70.7%) 구술 자료보다(57.1%) 높게 나타난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20) 권여선, 『제62회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2017) 수록 작품.

04. 드디어 흠먼지 흠이불이 집어삼킬 듯이 수남이의 조그만 몸뚱이를 뒹친다.
05. 수남이는 눈을 꼭 감고 숨을 죽인다.
06. 바람이 지난 후 수남이는 눈을 뜨고 침을 탁 뱉는다.
07. 입 속에 모래가 들어와 깔깔하고 목구멍이 알싸하니 아프다.
08. 다시 자전거 쪽으로 걸는다.
- : : :
22. 그리고는 거울처럼 티 하나 없이 번들대는 차체를 면면히 훑어 보더니 “그러면 그렇지.” 하고 환성을 질렀다.
23. 아마 생채기를 찾아 낸 모양이다.

- 『자전거 도둑』(1999) 일부

위 작품에서는 주인공 ‘수남’이 자전거를 훔쳐 도망가는 사건을 클라이맥스로 볼 수 있는데, (37)은 ‘수남’이 자전거 도둑이 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는 장면이다. Schiffrin (1981: 60)에서는 HP가 클라이맥스로 올라가는 단계의 앞이나 뒤에 위치한 절에서보다, 클라이맥스와 클라이맥스로 올라가는 단계에서 더 많이 출현(모든 절의 25%)하며, 이러한 양상이 서사에서 기대할 수 있는 HP 사용의 정확한 패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37)은 전체 소설에서 클라이맥스로 올라가는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중략된 부분을 포함하여) 총 23개의 절에서 HP가 22번 출현하여 대부분 HP로 표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7)은 소설에서 HP가 서사 구조와 관련하여 쓰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설에서의 HP 사용이 모두 서사 구조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38) 01. 이제 당신은 두상의 숲, 바운에 앉아 정확하게 장방형으로 지어진 고대도시 앙코르 톨을 내려다보며 담배를 피워 문다.
02. 앙코르. 여긴 어쩐지 지구가 아닌 먼 외계의 도시인 것만 같다.
03. 그런데도 당신은 이곳이 낯익다.
04. 푸스스 새들이 날고 아발로키테스바라의 얼굴엔 그들이 드리워진다.
05. 두상의 코와 입 사이에서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다.
06. 해가 지고 있었고 당신의 시간은 계속 거꾸로 흐르고 있었다.

- 「당신의 나무」(1999)²¹⁾ 일부

- (39) 01. 소녀의 곁을 스쳐 그냥 달린다.
02. 메뚜기가 따끔따끔 얼굴에 와 부딪친다.
03. 쪽빛으로 한껏 갠 가을 하늘이 소년의 눈앞에서 땀을 돈다.
04. 어지럽다.

21) 김영하, 『제44회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1999) 수록 작품.

05. 저놈의 독수리, 저놈의 독수리, 저놈의 독수리가 뱀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06. 돌아다보니, 소녀는 지금 자기가 지나쳐 온 허수아비를 흔들고 있다.
07. 좀 전 허수아비보다 더 우쭐거린다.

- 『소나기』(1953) 일부

(38)은 과거에 ‘양코르’에 간 당신의 이야기이다. 작품은 2인칭 시점에서 과거와 현재로 교차 서술되는데, 특히 양코르에 간 과거의 장면을 서술하는 장면에서만 HP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시공간적 배경의 이동에 따라 작가가 장면을 의도적으로 분할한 것임을 시사한다. (39)는 작품의 인물 중 ‘소년’과 ‘소녀’가 함께 등장해 있는 장면이다. (39)를 추출한 ‘소나기’에서는 소년과 소녀가 함께 있는 장면에서만 HP가 출현한다. 소년이 혼자 있거나, 소녀를 생각하는 장면 등에서는 과거시제로만 서술되어 있는 것이다. 이 역시 작가가 소년과 소녀가 함께 있는 장면만을 의도적으로 분할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정남(1994)에서는 등장인물에 따라 시제형이 바뀌는 예도 제시된 바 있다. (39)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등장인물에 따라 시제의 출현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장면 분할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8), (39)에서의 HP의 출현은 서사 구조와 관련하여 설명되기 어려우며, Wolfson (1979)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서사 속의 특정한 장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양상도 작가의 전략적 선택에 기인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구술서사나 구비서사에 출현하는 HP와는 다른 모습이라고 하겠다.

3장에서 구술 자료에서는 HP가 ‘막’과 같은 양태 부사와 공기하는 빈도가 높고, 인용 구문의 인용동사에 HP가 쓰이는 빈도도 높으나, 소설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살펴본 바 있다. 또한 (37)~(39)에서 살펴본 바 있듯이, 소설에서의 HP는 서사 구조와 관련되거나 (37), 장면 분할(38, 39)과의 관련성이 두드러진다.²²⁾ 이러한 현상은 구술 자료의 HP와 소설의 HP의 사용 동기가 다름을 시사하는데, 소설의 경우에는 서사 구조, 장면 분할 등을 위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인 경향이 강하다면, 구술 자료에서의 HP의 선택은 ‘생생함’의 효과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즉흥적 선택의 결과인 경향이 강하다고 하겠다.

4.3. 기타 장르

구술 자료나 문학작품에서처럼 그 출현 빈도가 높은 것은 아니나, 홍보문이나 뉴스

22) 그러나 본고에서 살핀 소설 중, 특정한 경향 없이 HP가 출현하는 경우도 있었는데(『병어리삼룡이』(1925)), 이는 소설의 문체가 정립되는 과도기의 특성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동인(1929; 권영민 1995: 333-362)에서 “불완전한 구어체에서 철저적 구어체로—동시에 가장 귀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서사 문체에 대한 일대 개혁”이라고 하며, “현재법을 사용하면 주체와 객체의 구별의 명료치 못함을 깨달았다. 우리는 감연히 이를 배척하였다.”라고 언급한 데서 20년대에 소설의 문체, 시제의 사용과 관련한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언급은 문학작품의 시제가 작가에 의해 전략적으로 선택됨을 뒷받침해 준다.

보도에서도 HP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40)은 앞의 (4)를 옮긴 것이며, (41)은 문숙영(2008: 62)에서 제시한 뉴스 보도문의 예이다.

- (40) 01. ‘꿈을 가져라’ 백 번 말하기보다
‘꿈의 박람회’ 한 번 보여주세요!
02. 1855년 파리의 만국박람회에서 철로 만든 ‘산업의 궁전’을 본 구스타프 에펠은 1889년 다시 열린 파리박람회에서 에펠탑을 선보입니다.
03. 1970년 오사카박람회를 보며 과학자의 꿈을 키운 다나가 고이치는 2002년 셀러리맨 과학자로서 일본에 노벨 화학상을 안겨줍니다.
04. 1993년 대전엑스포에서 꿈돌이를 만난 청소년들은 오늘날 세계 정상의 IT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05. 꿈을 키우고, 꿈을 이루는 박람회가 19년만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 (41) 앵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인에 비해서 진동에 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흔들림에 장시간 노출되면 각종 성인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10년 넘게 12톤 트럭을 모는 송정봉 씨. 웬지 모르게 승용차를 탈 때보다 훨씬 빨리 피곤을 느낍니다. 계속되는 차량 진동 때문입니다. 한국표준과 학연구원의 연구에서 이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40), (41)은 홍보문이나 뉴스 보도문에도 HP가 쓰임을 보여 주는데, 이들 예에서 HP로 표현된 부분은 이야기의 성격이 강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담화에 관한 여러 선행 연구에서 텍스트가 순수하게 하나의 장르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몇 개의 장르가 혼합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Fairclough 2003: 34). (40-02, 03)은 엑스포를 관람한 경험이 있는 유명인의 이야기이며, (41)에서 기자 보도의 앞부분은 특정인의 경험에 관한 이야기로서, 이들은 장르가 혼합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르의 혼합은 내용과 관련된 실제 사건을 제시함으로써 사실감, 신빙성 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0), (41)에서처럼 홍보문이나 뉴스 보도에 HP가 쓰인 경우에도 HP의 출현은 서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HP는 이야기 공간의 사건에 대해서만 쓰일 수 있다’는 (18나)의 제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겠다.

5. 맺음말

지금까지 HP가 어떻게 과거 사건을 표현하는 데 쓰일 수 있는지, 그리고 HP가 나타나는 서사질의 특성과 장르에 따른 사용 양상의 차이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HP는 현재시제이다. HP가 과거 사건에 쓰일 수 있는 것은 이야기 공간의 과거 사건을 ‘재현 공간’으로 옮겨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재현 공간’은 스포츠 중계 화면이나 자료 영상처럼 화자 및 청자가 직접 볼 수 있는 것으로 마음 속에 상정되는 공간이므로, 화자 및 청자는 사건이 눈앞에서 전개되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재현 공간 사건의 사건시는 연관된 사건의 시제 해석의 기준시점이 된다.

둘째, HP는 이야기 공간이 형성될 때에만 쓰일 수 있다. 홍보문이나 뉴스 보도에서도 HP가 쓰인 예를 종종 발견할 수 있으나, 이는 장르 혼합의 결과로서 HP의 출현은 서사 장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구술 자료의 경우, HP가 쓰인 서사절에서 ‘생생함’과 관련이 있는 양태 부사 ‘막’이 출현하는 빈도가 다른 시제형일 때에 비해 높다. 또한 구술 자료에서 인용구문인 경우 HP 출현 비율이 높고, 서사 담화 전체적으로 인용 방식에 따른 HP 출현 빈도의 차이는 크지 않다. 한편 직시어의 경우 ‘사건의 이동’의 특성을 반영하는 예들이 있으나, 그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직시어가 쓰이는 예도 있는데, 이처럼 직시어의 출현 양상이 일률적이지 않은 것은 이야기 공간의 사건이 대화 공간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화자 및 청자의 마음 속에 상정되는 재현 공간으로 옮겨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HP 출현 양상은 장르에 따라 다르다. 소설에서의 HP는 서사 구조와 관련되거나, 장면 분할 혹은 등장인물과의 관련성이 두드러지며, 따라서 전략적 선택의 결과인 경향이 강하다면, 구술 자료에서의 HP의 선택은 ‘생생함’의 효과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즉흥적 선택의 결과인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References

- 고영근. (2008). “민족문학작품과 서사시제”, 『관악어문연구』, 33, 55-108.
- 김금희 외. (2017). 『제62회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 현대문학.
- 권영민. (1995). 『한국의 문학비평』, 민음사.
- 김영하 외. (1999). 『제44회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 현대문학.
- 김원우 외. (1999). 『한국 대표단편 57인 선집』, 프레스21.
- 김정남. (1994). “현대소설의 지문에 나타나는 시상의 양상과 기능”, 『텍스트언어학』, 1, 317-340.
- 김정남. (2010). “소설 텍스트 시제이동의 한 가지 새로운 기능”, 『텍스트언어학』, 28, 1-22.
- 나도향. (2014). 『병어리 삼룡이』, 문학과지성사.
- 목수현. (1991). 『밤 해 먹으면 바느질허랴 바느질 아니믄 빨래허랴(민중자서전 18)』, 뿌리깊은나무.
- 문숙영. (2005). 『한국어 시제 범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학위논문.
- 문숙영. (2008). “시제 어미 및 시제 상당 표현의 사용과 관련한 몇 문제”, 『한국어 의미학』, 27, 45-73.
- 문숙영. (2011). “접속문의 시제 현상과 상대시제”, 『한국어학』, 50, 141-172.
- 문숙영. (2012). “인용과 화시소의 전이”, 『국어학』, 65, 219-249.

- 박완서. (1999). 『자전거 도둑』, 다림.
- 배희한. (1992). 『이제 이 조선통에도 녹이 슬었네(민중자서전 2)』, 뿌리깊은나무.
- 서영환. (2010). “역사적 현재시제의 담화-화용적 기능”, 『현대영미어문학』, 28-1, 191-214.
- 서영환. (2014).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에 나타난 네러티브 현재시제 연구”, 『현대영미어문학』, 32-2, 73-95.
- 서정수. (1976). “국어 시상 형태의 의미분석 연구”, 『문법연구』, 제3집, 83-158, 문법연구회.
- 서정수. (1992). 『(증보개정판) 국어 문법의 연구 I』, 한국문화사.
- 서정수. (1994). 『국어 문법』, 뿌리깊은나무.
- 송해정. (2013). “‘역사적 현재시제’ 다시보기 - 러시아어의 언어특성 분석을 통하여”, 『언어와 언어학』, 59, 99-120.
- 이인영. (1993). “소위 ‘역사적 현재’에 관하여 - 러시아어를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8, 101-151.
- 조남현 외. (2007). 『문학과지성사 한국문학선집1, 2』, 문학과지성사.
- 조민정. (2015). “문법화에 따른 ‘막’의 기능 및 의미 변화 연구”, 『한국사전학』, 26, 177-215.
- 최동주. (1995=2015). 『국어 시상체계의 통시적 변화』, 국어학회.
- 최동주. (2014). “담화에서의 언어 표현의 선택 -『여수엑스포 길라잡이』의 담화 분석-”, 『인문연구』, 72, 1-30.
- 최지현. (2005). 『담화표지 ‘막’의 기능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순원. (1999). 『소나기』, 다림.
- Abbott, H.P. (2008).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Narrative*,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fe, W. (1994). *Discourse, Consciousness, and Tim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oi, Young-Seok. (2002). On the meaning and function of the historical present tense. *현대문법연구*, 27, 147-160.
- Chong, Hi-Ja. (1988). The function of tense in Korean narrative. *언어*, 13-2, 363-402.
- Cutrer, M. (1994). Time and tense in narrative and in everyday languag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 Fairclough, N. (2003), *Analysing Discourse - Textual Analysis for Social Research*. Routledge.
- Fauconnier, G. (1994). *Mental Spac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auconnier, G. (1997). *Mapping in Thought and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ldsmith, J. and E. Woisetschlaeger (1982). The logic of the English progressive, *Linguistic Inquiry*, 13-1, 79-89.
- Jespersen, O. (1931). *A Modern English Grammar - on Historical Principles, PART IV, SYNTAX, third volume, Time and Tense*. George Allen & Unwin Ltd.
- Kiparsky. (1968). Tense and mood in Indo-European syntax. *Foundations of Language*, 4-1, 30-57.
- Labov, W. and J. Waletzky. (1967). Narrative analysis: Oral versions of personal experience. In Helm, J. ed., *Essays on the Verbal and Visual Arts*, 12-44.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Labov, W. (1972). The transformation of experience in narrative syntax. In Labov W, *Language in the Inner City*, 354-396.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Langacker, Ronald W. (1991).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ume II, Descriptive*

Applica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Schiffirin, D. (1981). Tense variation in narrative. *Language* 57(1), 45-62.

Silva-Corvalán, C. (1983). Tense and aspect in oral spanish narrative: Context and meaning, *Language* 59(4), 760-780.

Wolfson, N. (1979). The conversational historical present alternation, *Language* 55(1), 168-182.

김인환

박사과정

국어국문학과

영남대학교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전자우편: enan919@naver.com

여현정

박사과정

국어국문학과

영남대학교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전자우편: yth2093@naver.com

최동주

교수

국어국문학과

영남대학교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전자우편: djchoi@ynu.ac.kr

접수일자 : 2018. 11. 10

수정본 접수 : 2018. 12. 18

게재결정 : 2018. 12. 20